

지역 소식통

정읍시, 중기 아바육아휴직 장려금 최대 90만원 지원

정읍시가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100인 미만 중소기업 소속 아바 육아휴직자에게 최대 9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관내 100인 미만 사업장 남성 근로자다. 신청일 기준 본인과 자녀가 모두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 중이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한 대상자에게는 월 30만원씩 3개월간 최대 9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단,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급은 제한된다. 장려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는 정읍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정읍시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이달부터 아동수당 9세 미만 월 11만원 지급

정읍시가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월 11만원으로 지원금을 인상한다.

고창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은 2022년 사업이 확정된 이후 공사사업 시행자인 LH공사와 후보지 경투심 및 시행협약 체결을 완료하였고 최종 국토부 승인사항인 시행계획인가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주민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등)를 추진중에 있어 사업 착공이 임박한 상황이다.

또한 거주 지역별 차등 지급 제도가 도입된다. 인구 감소 우대 지역에 포함된 정읍시는 기존보다 인상된 월 11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연령 초과로 중단됐던 아동(2017년 1월~2018년 3월 출생)은 별도의 신청 없이 당당자의 직권 신청을 통해 지급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유망 청년기업 첫 선정

주식회사 키움·스마일푸드에 '청년기업 인증서' 수여... 3년간 집중 성장 지원

정읍시가 지난 3월 31일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 정신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유망 기업 2곳을 선정해 '청년기업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번 수여식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청년 기업을 격려하고 실질적인 성장 지원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올해 처음 도입된 '청년기업 인증제'는 정읍시에 본점을 둔 중소기업 중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이 대표이며, 상시 고용 인원 중 청년 비율이 30%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등 엄격한 검증을 거쳐 최종 2개사를 선정했다.

첫 인증의 영예를 안은 '주식회사 키움'은 창업 초기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창업보육실에 입주해 연구 기반을 다진 복합 비료·사료 제조 기업이다. 또한 '주식회사 스마일푸드'는 신용(육가공)전문농공단지에서 육류 가공품을 제조하며 활발하게 임직



를 넓혀가고 있다. 인증 기업은 향후 3년간 기업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주요 지원 내용은 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 0.5% 추가 지원, 각종 기업 지원 사업 선정 평가 시 가점 부여, 전복상생협력 연구센터 입주 심사 시 우선순위 부여 등이다.

시는 이번 '청년기업 인증제'가 개별 기업의 성장을 넘어,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해 마음껏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조민규 군수 후보의 터미널·꽃정원 주장, 사실과 달라"

고창군, 조 후보 발언 반박 입장 표명... "터미널 사업 정상 추진·꽃 정원 기반 조성 완료 상태"

고창군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고창군수 후보자 선출 합동연설회에서 제기된 조민규 후보의 발언과 관련해, 고창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 고창 꽃정원 조성사업 관련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고창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은 2022년 사업이 확정된 이후 공사사업 시행자인 LH공사와 후보지 경투심 및 시행협약 체결을 완료하였고 최종 국토부 승인사항인 시행계획인가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주민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등)를 추진중에 있어 사업 착공이 임박한 상황이다.

또한 임시터미널 이전 등도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다. 고창하나로마트 옆에 임시터미널이 운영중에 있으며, 주

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현재 부지에는 올 상반기 중 새로운 복합터미널이 착공을 앞두고 있다.

고창 꽃정원 단지는 당초 폐자재 및 폐기물 적치, 배수 시설 등 기반 시설이 미비했었다.

이후 2024~2025년(2년간) 기반조성 1, 2단계 공사로 배수로, 보행로, 고창읍성~꽃정원간 오솔길 조성, 노동자수지~꽃정원간 보행데크 조성, 경관 조형 설치 등 기반 조성을 완료했다.

현재 톨립 약21만본, 히어린스, 크로커스, 비올라를 식재했고 꽃양귀비, 안개꽃, 금영화 등 10여종의 씨앗을 파종하였다. 4월 중순부터 5월까지 차례로 만개할 예정이며 현재 수선화만 피어있다는 주장은 현재까지 추진한 기반 조성 사업과 식재 및 파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주장이다.

고창 꽃정원 단지 부지는 고창읍 중심지이며 터미널과 고창IC가 가까워 군민들과 방문객의 유입이 양호한 곳이다. 고창군은 주 이용층이 제한적인 파크골프장보다 고창읍성, 노동자수지, 자연마당과 함께 연계한 지역 대표 관광벨트 형성을 목표로 꽃정원 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용층이 제한적이라면 그 혜택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군민과 방문객 누구나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지난 2년간 기반 조성을 완료하였고 현재 꾸준히 방문객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꽃정원을 고인돌 공원 근교로 옮기거나 파크골프장을 짓자는 의견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단가 인상

정읍시가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급·간식 질 향상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영·유아아의 급·간식비 지원 단가를 전면 인상한다.

이번 단가 인상은 영아반과 유아반의 연령별 지원 격차를 줄이고 모든 영유아에게 더욱 균형 잡힌 급·간식 제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상된 단가는 올해 3~12월까지 적용된다. 조정에 따라 3~5세 유아반과 0~2세 영아반(장애아 기본반 포함)의 지원 단가가 동일하게 상황된다. 기존 1일 1000원(월 2만) 수준이었던 지원금은 1일 1240원(월 2만 4800원)으로 인상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사랑상품권 운영 체계 강화 '맞손'

고창군, 한국조폐공사와 고창사랑상품권 활성화 협약 맺어

고창군이 4월 1일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고창사랑상품권 발행·유통 활성화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고창군수,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류·카드·모바일 상품권의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해 고창사랑상품권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상품권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 안정성을 강화해 군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한국조폐공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상품권의 신뢰도와 운영 효율성을 높여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사랑상품권 운영 플랫폼은 오는 7월2일부터 한국조폐공사 모바일 앱 'Chak'으로 전환되며, 기존 '고창사랑



페이' 앱은 6월30일자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에게는 원활한 이용을 위해 'CHAK' 앱으로의 전환을 당부드린다.

고창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선순환시키며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안정에 기여해 온 고창군의 대표적인 민생경제 정책이다. 고창군은 해마다 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총 880억 원을 발행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 세대가 아우러지는 화합의 장 열려

제25회 계화면민 화합행사 성료

부안군 계화면은 1일 창북초등학교에서 제25회 계화면민 화합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계화면민 화합행사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정근)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정화영 부안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면민 등 900여명이 함께 참가한 가운데 화합의 장을 펼쳤다.

행사에서는 계화면 이장협의회(위원장 박병무)에서 200만원, 계화농협(조합장 이석훈)에서 300만원, 돈지마을이금배 이장이 100만원을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장학금으로 기탁했으며 계화면 바르게살기협의회(회장 황정덕)에서 100만원, 계화면 새마을부녀회(홍명숙)에서 100만원을 부안에 대한 사



랑을 담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전달해 각별한 의미를 담아냈다.

행사는 풍물공연을 비롯해 장기자랑, 주민자치 공연, 신나는 예술버스, 포스아트컴퍼니 공연 등이 다채롭게 펼쳐졌으며 계화중학교 학생들의 장기자랑은 지역의 어르신들께 활력과 큰 즐거움을 선사하면서 지역사회의 따뜻한 감동을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모바일 헬스케어 대상자 모집

30일까지 선착순 50명 현장 접수

부안군보건소는 ICT(정보통신기술)를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인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참여자를 선착순 50명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모바일 앱과 스마트밴드를 활용해 보건소 방문 없이도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참여자는 6개월간 활동량, 식단,

건강 상태 등을 전문가와 비대면으로 관리받게 된다. 모집 대상은 건강위험 요인(혈압, 공복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5가지 중 1개 이상을 보유한 19세 이상 64세 이하 부안군민 및 관내 직장인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방문해 기초 건강검진 등을 받아야 하며 선정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